

인구통계, 매달 '역대최저' 기록 경신

통계청 '2019년 9월 인구동향'...3분기 합계출산율 0.88명

출생아 줄고 사망자 늘면서 인구 자연증가 560명에 그쳐

9월 출생아 수가 동월 기준 역대 최소 기록을 경신했다. 출생아 수는 46개월 연속 감소하고 있다. 통계청이 27일 발표한 '2019년 9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올해 9월 기준 출생아 수는 2만4123명으로 전년 동월(2만6066명) 대비 1943명(7.5%) 감소했다. 출생아 수는 지난 2015년 11월 이후 46개월째 내리막을 걷고 있

다. 동월 기준 최소 기록도 42개월째 이어지고 있다. 출생아 수가 매일 역대 최소 기록을 갈아치우면서 올해 1~9월 누계 출생아 수는 23만2317명에 불과했다. 전년 동기 대비 7.9% 감소한 수치다. 3분기 기준 출생아 수도 7만3793명으로 전년 동분기(8만480명) 대비 8.3% 줄었다. 3분기 출생

아 수 역시 동분기 기준 통계 작성 이후 가장 적은 것으로 조사됐다.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대되는 출생아 수인 합계출산율은 3분기 0.88명으로 전년 동분기 대비 0.08명 감소했다. 이 역시 통계 작성 이후 가장 낮은 수치다. 연령별 여성 인구 1000명당 출산율도 40세 이상을 제외한 모든 연령대에서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마트 강남필통 스미글 겨울왕국2 에디션 출시 27일 오전 이마트 용산점에서 모델들이 이마트가 단독 수입해 판매하는 스미글 겨울왕국2 에디션 상품들을 선보이고 있다. 대표 상품으로는 '스미글 물병(2만4,000원)', '스미글 필통(2만9,000원)', '스미글 백팩(7만9,000원)' 등이다.

대출로 연명하는 자영업자...운전자금 대출잔액 사상 최대

9월말 서비스업 대출잔액 403조...분기 증가액 11.2조 최대

자영업자가 몰려있는 서비스업의 운전자금 대출잔액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27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9년 3분기(7~9월) 예금취급기관의 산업별 대출금'을 보면 9월말 서비스업의 운전자금 대출잔액은 전분기보다 11조2000억원 늘어난 403조3000억원이었다. 전년동기대비 증가율은 10.0%

로 전분기와 같았다. 서비스업 운전자금 증가액과 증가율은 지난 2분기에 이어 통계편제 이후 최대치 수준이다. 운전자금은 인건비, 이자, 재료비 등 보통 1년 간 경영에 필요한 자금을 말한다. 전산업은 물론 서비스업 대출 증가폭이 전분기보다 축소됐는데도 서비스업 운전자금 대출은 증가세를 이어갔다.

산업별 전체 대출 잔액은 전분기말 대비 20조5000억원 증가한 1183조7000억원이었다. 대출 증가폭은 전분기(22조2000억원)와 전년동기(24조3000억원)보다 둔화했다. 전년동기대비 증가율은 6.9%로 2분기(7.4%)보다 축소됐다. 전산업 대출 증가액 20조5000억원 중 서비스업 운전자금이 54.6%를 차지했다. 서비스업 대출 잔액은 전분기말

3분기 출생아 수 구성비를 보면 첫째아는 56.2%로 전년 동기 대비 1.3%포인트(p) 상승했지만 둘째아(35.3%), 셋째아 이상(8.5%)은 모두 하락했다. 출생아 수와 함께 감소세가 지속되던 혼인 건수는 올해 9월 반등했다. 9월 혼인 건수는 1만5800건으로 전년 동월(1만4344건) 대비 1456건(10.2%) 늘었다. 9월 혼인 건수가 늘었지만 3분기 기준 혼인 건수는 역대 최소치를 기록했다. 3분기 혼인 건수는 5만3320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460건(0.9%) 감소했다. 15세 이상 남·녀 인구 1000명당 혼인 건수를 뜻하는 일반 혼인율은 3분기 기준 남성이 9.5건, 여성이 9.4건으로 집계됐다. 남녀 모두 일반혼인율이 지난해 동분기보다 0.1건씩 하락했다. 9월 사망자 수는 2만3563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657명(2.9%) 증가했다. 반면 3분기 기준 사망자 수는 7만412명으로 전년 동분기 대비 317명(0.4%) 줄었다. 지난해 폭염 등 영향으로 7~8월 사망자 수가 큰 폭으로 늘어났던 기저효과라고 통계청은 설명했다. 출생아 수는 줄고 사망자 수는 늘면서 9월 인구 자연증가(출생아 수-사망자 수)는 560명에 그쳤다. 동월 기준 역대 최저치다. 인구 1000명당 인구 자연증가율도 0.1명을 기록하며 관련 통계 작성 이후 가장 낮은 것으로 집계됐다. 9월 이혼 건수는 915건으로 전년 동월 대비 1189건(15.2%) 늘었다. 3분기 기준(2만7571건)으로는 1125건(4.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뉴스1

대비 16조1000억원 늘어 719조3000억원을 기록했다. 대출 증가폭은 전분기(16조2000억원)와 전년동기(18조3000억원)보다 줄었다. 전년동기대비 증가율도 9.0%로 2분기(9.6%)보다 낮다. 서비스업 운전자금 증가세는 자영업자가 많은 도소매, 숙박 및 음식점업이 이끌었다. 도소매, 숙박 및 음식점업의 대출 잔액은 220조원으로 6조4000억원 늘었다. 전년 동기대비 증가율은 12.1%였는데, 이 역시 통계편제 이후 최대치다. 그중 도소매업의 대출 증가율은 12.9%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해 경영난의 심각성을 여실히 드러냈다.



삼성 '갤럭시' 시리즈 71개국서

1위...중국에서만 1% 점유율

3분기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 삼성 점유율 21% 기록

삼성전자가 지난 2분기에 이어 3분기에 글로벌 시장에서 1위를 수성했다. 플래그십 모델인 '갤럭시노트10' 시리즈와 중저가 라인업인 '갤럭시A'의 성공적인 확산 전략에 효과를 봤다는 분석이다. 시장조사업체 카운터포인트 리서치는 26일 90여개 국가의 스마트폰 제조사별 시장 점유율을 분석한 결과, 삼성전자가 71개국 시장 점유율 1위를 기록하며 지난 3분기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 21%로 1위를 수성했다고 밝혔다.

△네덜란드(44%) △노르웨이(44%) △그리스(42%) 등의 서유럽과 △루마니아(53%) △폴란드(49%) △우크라이나(48%) 등에서 높은 시장 점유율을 확보해 1위에 올랐다. 중동·아프리카 지역에서도 △쿠웨이트(53%) △카타르(44%) △이란(42%) △모로코(42%) 등 대부분의 시장에서 1위를 차지했다.

◇갤노트10·갤A 시리즈 '쌍끌이'...美, 中 경제제재로 화웨이 '주춤'도 영향

◇아시아·남미·유럽·중동 등에서 고른 강세... 자국 제조사 강세인 중국 시장만 1%

이와 같은 삼성전자 스마트폰 부문의 시장 점유율과 현실적인 미국의 중국에 대한 경제 제재도 일정 부분 영향을 끼친 것으로 분석된다.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는 △한국(72%) △스리랑카(42%) △베트남(35%) 등 한국 및 아세안 국가에서 1위를 차지하며 강세를 보였다. 반면 같은 아시아 지역에서도 화웨이, 비보, 오포 등 자국 스마트폰 제조사들이 강세를 보이는 중국 시장의 점유율은 1%에 불과했다. 북미·중남미 지역에서는 △칠레(53%) △베네수엘라(50%) 브라질(49%) 등 남미 지역 대부분의 시장에서 1위를 차지하며 강세를 보였다. 또 스캐너(37%) △미국(25%)에서도 시장 점유율 2위를 차지해 북미 지역에서도 선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럽은 비교적 애플에 대한 선호도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 5월 행정명령을 통해 무역 제재 명단에 화웨이를 올리면서 구글은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의 화웨이 공급을 중단했다. '가성비'를 앞세워 중저가 스마트폰에서 시장 점유율을 늘려가던 화웨이는 안드로이드 OS를 사용할 수 없게 되면서 자국을 제외한 유럽·중남미·중동 등의 지역에서 그기세가 꺾이기도 했다. 또 삼성전자의 플래그십 스마트폰 라인인 갤럭시노트10 시리즈와 중저가 스마트폰 라인인 갤럭시A 시리즈가 하반기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에서 좋은 반응을 얻은 것도 큰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살기 좋고, 기업하기 좋은

광주에 투자하십시오

- 🚗 친환경 자동차·에너지·문화산업 육성
- 🏠 에어가전 및 공기산업 클러스터 구축
- 🧠 AI 중심 산업융합 집적화 단지 조성
- 👥 풍부한 우수인력 및 연구개발 적극 지원

GWANGJU